

햄릿

1막 2장 (발췌)

윌리엄 셰익스피어

번역: 전석희 (StageText 예시용)

(호레이쇼, 마셀러스, 버나도 등장)

호레이쇼 전하, 문안 드립니다!

햄릿 반갑네, 잘 지냈나. 호레이쇼...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호레이쇼 맞습니다, 전하. 언제나 전하의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햄릿 종이 아니라 친구지. 그 말은 나와 바꾸세. 그런데 비텐베르크를 두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호레이쇼? 마셀러스도 왔군.

마셀러스 전하.

햄릿 정말 반갑네. (버나도에게) 안녕하신가. 그래, 비텐베르크를 두고 무슨 일인가?

호레이쇼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서요, 전하.

햄릿 자네 원수가 그렇게 말해도 안 믿을 걸세. 자네 스스로를 그렇게 헐뜯는 말을 내 귀에 억지로 들려주지 말게. 자네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란 건 내가 아네. 그런데 엘시노어엔 무슨 불일인가? 떠나기 전에 술 실컷 마시는 법은 가르쳐 주겠네.

호레이쇼 전하, 선왕의 장례를 보러 왔습니다.

햄릿 학우여, 놀리지 말게. 어머니의 혼례를 보러 온 거겠지.

호레이쇼 그렇긴 합니다, 전하. 너무 급히 뒤따랐으니까요.

햄릿 절약이지, 호레이쇼, 절약! 장례식에 구운 고기가 식기도 전에 혼인 잔치상에 올랐으니. 그 날을 보느니 차라리 하늘에서 내 철천지원수를 만나는 편이 나았을 걸세, 호레이쇼! 아버지... 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아.

호레이쇼 어디서요, 전하?

햄릿 내 마음의 눈에, 호레이쇼.

호레이쇼 저도 한 번 뵈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임금이셨지요.

햄릿 어느 모로 보나 사람다운 사람이셨지. 다시는 그런 분을 못 볼 걸세.

호레이쇼 전하, 어젯밤에 그분을 뵈 것 같습니다.

햄릿 뵈었다고? 누구를?

호레이쇼 전하, 선왕 전하를요.

햄릿 선왕을!

호레이쇼 잠시 놀라움을 거두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기이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햄릿 제발, 어서 말해 보게.

호레이쇼 이틀 밤 연달아 이 두 사람, 마셀러스와 버나도가 보초를 서다가, 죽은 듯 고요한 한밤중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형상이, 전하의 아버님과 꼭 닮은 형상이 나타나 엄숙하게 천천히 그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겁에 질려 굳어 버린 그들 눈앞을 세 번이나 지나면서도 지팡이 길이만큼밖에 떨어지지 않았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입도 떼지 못했고요. 이 이야기를 몰래 제게 털어놓기에 셋째 밤에는 저도 함께 보초를 섰는데, 그들 말 그대로, 시간도 모습도 하나 틀림없이 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전하의 아버님을 압니다. 이 두 손이 서로 닮은 것보다 더 닮았습니다.

햄릿 그게 어디었나?

마셀러스 전하, 저희가 보초 서는 망대였습니다.

햄릿 말을 걸어 보지 않았나?

호레이쇼 걸었습니다, 전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고개를 들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마침 새벽닭이 크게 울자 그 소리에 황급히 몸을 움츠리더니 저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햄릿 참으로 기이하군.

호레이쇼 제가 살아 있는 것만큼이나 사실입니다, 전하. 그래서 이 일을 전하께 알리는 게 저희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햄릿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마음이 어지럽군. 오늘 밤에도 보초를 서나?

마셀러스 섭니다, 전하.

버나도 섭니다.

햄릿 무장했다고 했나?

마셀러스 무장했습니다, 전하.

햄릿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햄릿 그럼 얼굴은 못 봤겠군.

호레이쇼 아니요, 보았습니다, 전하. 투구 앞가리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햄릿 어떤 표정이던가, 찌푸리고 있던가?
호레이쇼 노여움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햄릿 창백하던가, 붉던가?
호레이쇼 아주 창백했습니다.
햄릿 자네를 똑바로 보던가?
호레이쇼 뚫어지게요.
햄릿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호레이쇼 몹시 놀라셨을 겁니다.
햄릿 그랬을 테지. 오래 머물렀나?
호레이쇼 보통 속도로 백까지 셀 동안쯤이요.
마셀러스 더 길었습니다.
버나도 더 길었어요.
호레이쇼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였습니다.
햄릿 수염은 희끗희끗하던가?
호레이쇼 살아 계실 때 제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검은 바탕에 은빛이 섞여 있었지요.
햄릿 오늘 밤 나도 보초를 서겠네. 어쩌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지.
호레이쇼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햄릿 아버님의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지옥이 입을 벌려 조용히 하라고 해도 나는 말을 걸겠네. 부탁이 있네. 지금까지 이 일을 숨겨 왔다면 앞으로도 입을 다물어 주게.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기든 마음에 새기되 입 밖에 내지 말게. 이 우정은 꼭 갚겠네. 그럼 이만. 열한 시와 자정 사이에 망대로 찾아가겠네.
일동 전하께 충성을.
햄릿 충성이 아니라 우정일세, 내 우정과 같이. 잘들 가게.
 (호레이쇼, 마셀러스, 버나도 퇴장)
햄릿 아버지의 혼령이... 무장을 하고! 심상치 않아. 무슨 흥계가 있는 게 분명해. 어서 밤이 왔으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자, 내 영혼아. 악행은 온 땅이 덮어도 사람 눈앞에 드러나고 마는 법이니.
 (퇴장)